

< 여기서 뛰어라! -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

3. 추상을 다시 생각하다

그간 한국의 추상미술과 현대미술은 동의어를 이루고 있었다. 추상이 아닌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 작업의 추상이었다는 사실이다. 반면 최근 추상미술을 보기가 무척 드물어졌다. 또한 현재 미술계는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는 그간 한국현대미술에서 추상이 과도하게 좁고 편협하게 이해되어왔고 강제된 측면이 노정된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의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추상회화가 보여준 너무 좁고 얇은, 획일적인 이해와 집단적인 운동의 결과가 초래한 결과다. 추상은 대상의 묘사를 떠나 비모방적이고, 비재현적인 양식의 회화나 조각을 가리킨다. 이 같은 면에서 추상미술은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미술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상화 과정이 사물의 요소 중 하나를 독립시켜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정신의 지적 작용임을 고려할 때 추상미술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실제로 추상 미술가들은 관람자의 내적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화면에 그려진 구상성이 아니라, 형태와 색, 결, 선의 동적인 리듬이라고 주장하며, 이것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추상미술의 출현은 20 세기 이전까지 서양미술을 지배해온 전통적인 재현미술과의 이별을 의미했으며, 현대미술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추상이란 실은 전신적이고 관념적인, 재현적이고 서사적인,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이 최소한으로 압축되거나 걸러진 형식이다.

한국의 현대미술은 6.25 이후의 50 년대 말부터 잡는 것이 통례화 되어 있다. 70 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는 한국현대미술은 모더니즘미술로 불리면서 추상미술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성의 추구가 현대 사회의 모습이나 문제가 어떻게 미술로 표현되었느냐 보다는 어떻게 서구 또는 미국미술의 경향을 흡수하여 표출해냈느냐의 문제로 치환된 것이 이때부터다. 미술은 우리나라 현대정치/사회의 여러 측면을 관심 밖으로 밀어놓고, 예술가 개인의 자아와 그 형식적 표현에 골몰하게 되었다. 사회적 인식을 드러낸 미술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일제 시기의 제도가 온존하고 있던 남한의 미술계에서 개인의 감수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서구사회에서 근대의 표징이었던 주체성의 문제는 이 지점에서 오로지 개인적 정체성으로만 소화되었다. 서구의 모더니즘 미술이 감수성의 해방, 정체성의 확립, 합리적 사회의 건설에 대한 열망 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식민지경험을 지닌 한국의 모더니즘미술은 따라가야 할

서구화와의 등치에 대한 끝없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현대성의 추구가 현대 사회의 모습이나 문제가 어떻게 서구 또는 미국미술의 경향을 흡수하여 표출해 냈느냐의 문제로 치환되었다.

1970 년대에 이르러 장르별로 구분된 미술활동이 구체화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 현대 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해진다. '근대화=서구화'라는 등식을 추구하면서 부닥쳤던 정체성 상실의 문제는 70 년대 미술에서 무. 공(無.空) 과 같은 동양철학개념과 전근대 사회에서 선호되었다고 인식된'백색(白色)' 등의 색채의 추구하고 같은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해결을 찾으려 하였다. 모노크롬이라는 서구적 형식에 동양철학의 개념을 합치한 것 말이다. 당시 서구 물질문명의 추구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그 대응으로 동양적 정신성이 대두되었다. 근대화=서구화라는 등식을 추종하면서 부닥쳤던 정체성의 상실문제는 70 년대 미술에서 무. 공(無.空)과 같은 동양철학 개념과 전근대사회에서 선호되었다고 인식된 백색 등의 색채의 추구하고 같은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해결점을 찾으려 했다. 미국미니멀리즘이 갖고 있던 소위 지각조건의 반성이라는 반제도적 성격이 한국에서는 명상적인 형식주의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모노크롬이라는 서구적 형식에 동양철학의 개념을 합치시키려 했던 매우 추상적인 이 같은 개념과 색채는 한국성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 한국사회에 대한 천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70 년대 미니멀리즘과 단색평면회화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간 한국 추상미술은 조형에 관한 형식을 지나치게 기법적인 측면에 의존해왔고 첨단과 새로움이라는 전위의 개념을 과도하게 변혁의 합리성으로 이용해왔다. 추상 역시 지나친 형식의 기법적인 측면에 매달려 결국에는 반복의 지루함과 감각의 피상성에 지쳐버렸다. 추상성 역시 지나친 형식의 개념으로 풀어버려 형식만 바꾸면 조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순진하게 이해해왔다. 따라서 가장 순수해야 할 추상으로서의 형식이 스스로 정치적인 도구로까지 전락하는 모순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의미가 서구화와 동일시되어 체험되는 바로 그 질곡의 과정이 한국현대미술의 궤적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새삼 생각해볼 문제가 파생한다. 첫째, 우리 현대미술사의 서술이 전후 미국현대미술, 서구현대미술의 양식적 흐름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술되어야 했었는가?

둘째, 과연 우리에게 추상은 무엇이었으며 그 추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정도가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추상이었는가가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 현대미술은 굳이 추상이어야 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근대적 이성을 비판할 새로운 감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근. 현대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이성이 새삼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근대/현대미술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추상은 대상의 묘사를 떠나 비모방적이고, 비재현적인 양식의 회화나 조각을 가리킨다. 이 같은 면에서 추상미술은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미술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상화 과정이 사물의 요소 중 하나를 독립시켜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정신의 지적 작용임을 고려할 때 추상미술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강한 의미를 갖게 된다.